

무주반딧불사과 베트남 홍보 확대 주민 행복한 생활 여건 조성

황인홍 군수 일행, 하노이서 업체 관계자 만나 홍보·관로 확보 나서

무주군이 반딧불사과 수출 길 개척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무주농협 관계자들이 13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바이어들을 만나 무주반딧불사과 홍보하고 판매처 확보 여부를 타진했다.

13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NH무역 베트남 지사를 방문해 김면호 대표를 면담했으며 14일에는 배와 딸기,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수입업체인 Thuy Anh Fruits의 관계자들도 만나 맛과 품질이 우수한 반딧불사과를 직접 홍보했다.

또 Thuy Anh Fruits사가 현지에서 운영 중인 집포 5곳을 방문해 시장상황 등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Thuy Anh Fruits사 관계자는 “무주반딧불사과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사과를 보고 맛도 보면서 정말 최고라는 말을 실감했다”며 “과육상대나 당도, 맛, 품질, 친환경 경제배 방식 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을 비롯한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무주반딧불사과는 서늘한 기온과 높은 일교차의 영향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무주농협 관계자들이 13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바이어들을 만나 무주반딧불사과 홍보하고 판매처 확보 여부를 타진했다.

은 것이 특징이며, 생육기 병해충 발생량이 적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저장성도 좋아 반딧불 농·특산물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국외 시장을 꾸준히 넓혀 나가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5톤을 수출해 7억9천8백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베트남은 무주반딧불농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지난 6년간 각인된 반딧불 브랜드가 현지인들에게는 꽤나 인지도가 높다”며 “이번에도 무주반딧불사과에 대한 현지인들의 신뢰, 그리고 만족도를 확인한 만큼 손색없는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무리·운영

무주군 무풍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2022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올해부터는 주민위원회 주축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주민의견수렴과 중앙계획지원단의 컨설팅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공사를 시작하며, 주민의 다양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해서 지역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풍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 60억 원이 투입돼 심심지 문화센터 조성, 무풍치유정원과 금명천 수변치유길을 조성하고 중심기로를 정비했다. 특히 간판을 개선하고 낡고 쇠퇴한 소재지 거리를 깨끗하고 생동감 넘치는 벽화로 단장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 지역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위원회에서는 ‘무풍 심심지 문화활동조합’을 설립했으며, 함께 활동하게 될 조합원이 80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이 협동조합에서 상호 협업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앞서는 공동체로서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무풍면 심심지 문화센터는 지난 9월에 준공 이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로연 행사를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등 크고 작은 행사 진행이 가능하며, 헬스장비가 있는 체육관에는 지역주민이 한 달에 50여명이 등록해 운동을 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대석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풍면민들의 지역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크고 작은 행사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면서 무풍면을 활력 있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이색 답례품 추가 선정

진안군(군수 전준성)이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6차 회의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추가 선정과 신규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승마체험권(진안 용담승마클럽), 꿀(좋은마켓 진안산, 구봉부부 양봉원), 차(마이산 약초건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애농), 진안블랙 보리소주(농업회사법인 ㈜태평주), 하늘마(마이산고원농장) 등 총 7개 품목, 9개 업체로 승마체험권, 전통주 등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품목선정이 눈길을 끌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번 선정은 공급업체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군은 빠른 시일 내 답례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금에 답례품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답례품으로 누룽지를 추가 선정했다.

진안군은 연중 답례품 공모를 통하여 진안군의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답례품은 총 35개 품목 41개 공급업체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기부자가 자긍심 느끼는 고향사랑기부 돼야”

황인홍 무주군의회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요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기부홍보와 답례품 선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의회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해왔다. 이런 가운데 황인홍 의원(사진)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방식과 답례품 선정 등에서 무주군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홍 의원은 “무주에 기부한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통해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답례품을 물품만으로 채워서는 안 되며 기부행위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인홍 의원은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무주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도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려고 한다. 많은 연구활동으로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해 기부자들이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시회에서는 제한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도 제기됐다. 문은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단체의 매력과 자질을 살리는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가 이 같은 부담함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열어

장수군은 14일 2023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 차액지원사업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행정·의회·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민단체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련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비 차액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비 차액지원사업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농협 자체수매 물량을 대상으로 1ha 면적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kg당 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 추진 총력

무주군은 올해 산림소득분야 농림사업을 추진해 임가 소득증대와 임업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쏟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17억2천여 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표고버섯 육성지원, 도라지 육성지원 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무주 천마를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트랜

드 맞춤형 제품생산으로 임산물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두·표고·도라지 등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임업인들에게 생산자재를 지원하고, 호두 식재지 임야 유휴지에 산천마 재배를 지원하는 등 복합경영사업 추진을 통해 임산물 생산 단위면적당 산림소득을 높이고자 한다.

군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신청자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에 따라 2023년 산림소득분야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여성의 힘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장수읍에 위치한 여성문화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리와 시간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성문화센터는 면 주민들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면 지역 행복나눔터와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분기별 특강형식으로 진행된다.

무알콜맥주, 쿠키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수요에 맞는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연구 사업 착수

무주군은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연구 사업을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종 발굴 및 재배 방법 등의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무주사과단지 실증시험포장 내 1,150㎡ 부지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은 한정된 토지에 농업과 에너지산업이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모듈 감소 등 경제성이 낮은 단점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타이백필름을 활용해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